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1월(제65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독일과 오이타의 소중한 인연  
🔥 독일 키제베터 대령 방문 오이타현



키제베터 대령(가운데)과 대령 부인(왼쪽에서 두 번째).  
대령 부인이 입은 기모노(着物)는 전통 의복교실에서  
입는 법을 배워 직접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4일, 주일독일대사관 소속 국방무관 카르스텐 키제베터(Karsten Kiesewetter) 대령과 소피 키제베터 대령 부인이 오이타현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2박 3일의 일정 중 1일 차에 히로세 오이타 현지사를 만나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인 포로와 오이타 현민 간의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교류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해 20여 분 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대령 부부는 현청 방문 외에도 오이타현 사쿠라오카 성지(구 육군 묘지) 추모 행사 참석, 오이타 포로수용소 사진전 관람 등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이어 2일 차에는 독일의 바트 크로칭엔(Bad Krozingen)시와 온천 연수 자매도시를 체결한 다케타시와 히로세 지사의 고향 히타시를 방문했으며, 3일 차에는 벵푸 대학에서 독-일 우호 160주년 기념 강연 '독-일 문화교류'를 끝으로 오이타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대령 부부는 다가오는 12월 도쿄 긴자에 있는 오이타 레스토랑 '자라이 오이타(坐来大分)'의 리뉴얼 오픈 이벤트에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독일과 오이타의 각별한 인연을 재확인 할 수 있었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도 교류가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다카사키야마의 새로운 매력 포인트 탄생  
🔥 다카사키야마 테라피 로드 오이타시



(영상) <Hike Mt. Takasaki -高崎山セラピーロード->  
(일본어) <https://youtu.be/SaXHWSvK9TI>  
(영어) <https://youtu.be/JkwRyoi1KME>

‘일본원숭이 서식지’로 유명한 다카사키야마(高崎山)에 새로운 매력 포인트가 탄생했습니다.

‘오이타 산림 테라피 로드’의 새로운 코스로서 다카사키야마에 등산 숲길을 조성한 것인데요, 산 정상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나무들을 정리하여 초보자도 오르기 쉬운 등산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산에 오르면 360도로 전망이 보인다고 하여 옛날 ‘시하쓰야마(四極山)’로 불리던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으니 많은 방문 바랍니다.

<다카사키야마 테라피 로드 高崎山セラピーロード>

‘다카사키야마 테라피 로드’는 오이타시 테라피 로드 중에서도 초심자가 오르기 쉬워 인기가 많은 코스입니다. 남쪽 등산로(南登山口)에서 정상까지 오르는 데 약 45분이 걸리며, 정상 근처에는 오토모(大友氏) 시대의 다카사키 산성 유적이 있으며 운이 좋으면 야생 일본원숭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1월(제65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울긋불긋 황금빛으로 물든 오이타를 만끽해보세요

## 고코노에 가을 관광지 추천 고코노에정

오이타현 중서부에 위치한 고코노에정(九重町). 동남쪽에 위치한 10여 개의 구주 연산(九重連山)에 둘러싸여 있어 산림이 풍부한 것이 특징인 고코노에정에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지 두 곳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다.



九重“夢”大吊橋

구글 지도 ▶



### 고코노에 “꿈”의 대현수교



일본 국내에서 사람이 건너는 현수교 중 가장 높은 위치(173m)에 설치된 현수교로 해발 777m, 길이 390m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고코노에 “꿈”의 대현수교’라는 이름은 공모를 통해 정해진 것으로 공모 당시 5,890건이나 접수되었는데, ‘고코노에’라는 지명과 ‘꿈’을 강조하는 큰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위 명칭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내가 방문한 날은 11월 둘째 주 단풍 절정 시기로, 높은 곳에서 울긋불긋 물든 산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을이 온 것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잠시, 현수교가 해발이 높은 산 속 계곡에 위치한 만큼 날씨가 매우 변덕스럽고 추웠기에(영상 5도 정도) 옷은 따뜻하게 입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다리를 왕복으로 건너 후에는 매표소 근처에 있는 기념품점을 둘러보고 명물 “꿈” 햄버거도 먹어보자(매주 금요일 휴무). \* 대현수교 입장료 : 어른 500엔, 초등학생 200엔



단풍으로 물든 계곡 사이로 해가 비치는 모습  
(다리 위에서 촬영)



신도노타키 폭포와 대현수교의 모습  
(기타가타 구역에서 촬영)



메타키(왼쪽)과 오타키(오른쪽)의 모습  
(다리 위에서 촬영)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1월(제65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タデ原湿原

다데와라 습원

구글 지도 ▶



고코노에 “꿈”의 대현수교에서 차를 타고 남쪽으로 15분 정도 가면 구주 연산을 배경으로 한 황금빛의 드넓은 억새밭이 펼쳐진다. 한다 고원(飯田高原) 조자바루(長者原)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옆 동네 다케타시에 있는 보가쓰루 습원(坊がつる湿原)과 함께 일본 국내에 있는 중간 습원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5년에 ‘구주 보가쓰루·다데와라 습원’으로 람사르 협약(습지와 습지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에 등록되어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들불 놓기’를 매년 하고 있다.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습원은 관리해주지 않으면 숲이 되어버리기에 매년 봄에 불을 놓아 초원의 풀을 태운 후 새싹이 자라나도록 하는데, 이 때문에 예로부터 ‘구주의 봄은 검은색’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새로이 자라난 풀들은 여름이 되면 푸르른 녹음을 만들어 내고 가을이 되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억새밭이 되어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한다. 가을에 방문할 때는 운이 좋으면 내가 방문한 날처럼 단풍과 산에 내린 첫눈, 그리고 억새의 조화를 볼 수도 있다.

다데와라 습원에는 나무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어 억새 사이를 거닐 수 있는데 이 길은 배리어 프리 정책으로 만들어져 휠체어 및 유모차로도 산책할 수 있으며, 비상시에는 조자바루 비지터 센터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해발 1,000m에 위치한 만큼 매우 추우므로 옷은 따뜻하게 입고 가자.



나무 산책로와 울긋불긋 물든 산의 모습  
(산책로에서 촬영)



억새와 첫눈이 내린 미마타야마산(三俣山)의 모습  
(산책로에서 촬영)



구름이 물려오는 다데와라 습원의 모습  
(산책로에서 촬영)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 (pu-no314@pref.iota.jp)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1월(제6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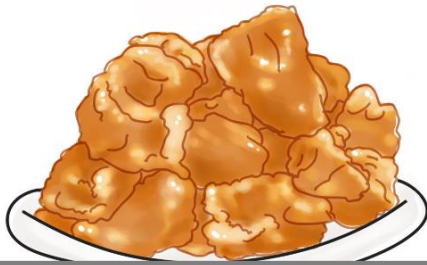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노지 in 오이타

10화

오이타의 명물, 가라아게 (닭튀김)!



일본에 살고있지만 해물을 못먹는 나는  
\*노화참고



오이타가 가라아게의 성지라서  
진짜 너~~~~ 무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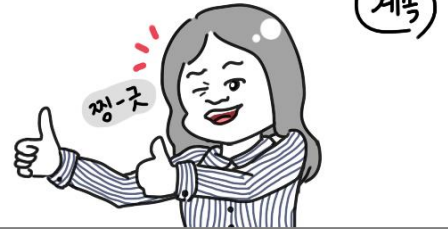
생각해보면 오이타에 오기 전  
먹어본 가라아게는 편의점에서  
사먹던 가라아게군 정도였는데



지금은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가게에 들러 가라아게를 포장해와  
맥주랑 먹는 게 일상이 되었다.



아무튼, 갓 튀긴 오이타 가라아게  
진짜 x100 맛있으니까 (식어도 맛있음)  
여러분도 꼭!! 먹어보라구!!!



특히, 가라아게의 성지라고 불리는  
나카쓰에서 먹은 건 진짜... 감동이있음...



너  
너무 바삭해서  
입천장 까짐주의!!  
하지만 속살은  
촉촉하답니다~